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보 도 자 료	힘내라 대한민국

2020년 7월 1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7. 15.(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0. 7. 15.(수)	담당부서	투자유치과
담당과장	김규성 과장(044-203-4080)	담 당 자	장원 사무관(044-203-4081)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20. 7. 15.(수) 배포 -

※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동향 자료는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통계(INSC)와 외국인직접투자연구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를 분석한 자료임

○ 신고금액 및 도착금액은 **6월 30일까지의 잠정실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일부 수치는 추후 변경이 가능**함

○ 산업부의 외국인직접투자 동향은 **매분기 발표**되며, **'20년 3분기(누적)**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자료는 **'20년 10월 발표 예정**

20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 신고기준 76.6억 달러, 도착기준 47억 달러 -

Ⅰ. 종합

□ **(실적) '20년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신고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4% 감소한 **76.6억 달러**, **도착기준**은 23.9% 감소한 **47억 달러**를 기록

【 최근 10년('10-'19)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억 달러) **】**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10년 평균	2020
신고	43.3	53.6	71.1	80.0	103.3	88.7	105.5	96.0	157.5	98.7	89.8	76.6
도착	22.8	29.6	48.8	46.4	76.0	63.1	51.5	54.8	102.7	61.8	55.8	47.0

□ **(평가) 코로나19**로 인한 국경간 이동 제한,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세계 FDI가 감소한 가운데 **우리도 본격적인 영향**을 받기 시작함

○ 다만, 감소폭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임

* (미국 억달러) ('19.1분기) 816 → ('20.1분기) 526 (△35.5%) / (일본 억엔) ('19.1분기) 16,023 → ('20.1분기) 3,057 (△80.9%)

○ 일본 수출규제 대응 노력으로 ❶**소재·부품·장비,** ❷**연구개발센터 등 첨단분야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고, 코로나19로 인한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등** ❸**비대면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기회가 확대됨

□ **(글로벌 전망)** 국제연합무역개발회의(UNCTAD)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 2020년 세계 FDI는 **'19년**(1.54조 달러) **대비 40% 감소**할 것(1조 달러)으로 전망

○ **'21년에도 5~10% 추가 감소**하여 9천억 달러 이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

【 UNCTAD의 글로벌 FDI 전망 】

	초기 전망(3.8)	수정 전망(3.26)	WIR 전망(6.16)
FDI 감소율	5~15%	30~40%	40%

Ⅱ. '20년 상반기 주요 특징

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분야에 새로운 투자 기회

○ 비대면과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관련 투자와 이를 지원하는 **물류센터,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등의 투자 유입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세계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은 **"K-방역" 성과**에 기반한 **의약·의료기기** 분야 투자 사례도 증가

〈포스트 코로나 주요 투자사례〉

- **(A사)** 국내 유명 온·오프라인 교육서비스 기업 지분 투자(케이만군도, 1억 달러)
- **(B사)** 기업용 메신저, 영상회의, PC화면 공유 등 비대면 업무 지원(日, 0.5억 달러)
- **(C사)** 신선식자재 콜드체인 물류시스템 고도화 투자(케이만군도, 1.2억 달러)
- **(D사)** 건강기능식품 대량생산을 위한 조직배양 기술 R&D 시설 투자(美, 0.9억 달러)

2 4차 산업혁명과 관련 정보기술(IT), 의약, 연구개발 등 신산업 분야 유치 확대

○ 코로나19 확산에도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정보기술, 생산기술 혁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

* 자율주행차,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블록체인, 의약, 전자상거래 등

** 신고금액 및 비중 : ('19. 상반기) 37.6억 달러, 38.1% → ('20. 상반기) 38.1억 달러, 49.7%

- **(제조업)** ①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접목한 **의약·의료기기** 관련 국내 유망 신생기업에 대한 투자와 ②반도체·이차전지 등 **전기·전자 분야** 투자가 증가

* (신고기준, 억 달러) ①의약 : ('19.上) 1.3 → ('20.上) 4.2, ②전기·전자 : ('19.上) 1.9 → ('20.上)6.7

- **(서비스업)** ①게임·방송·전자상거래 이용 증가에 따른 새로운 플랫폼 서비스 등 **정보통신** 관련 투자와 ②바이오·전기전자 등 첨단산업 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가 지속

* (신고기준, 억 달러) ①정보통신 : ('19.상반기) 8.0 → ('20.상반기) 10.1, ②연구개발 : ('19.상반기) 2.9 → ('20.상반기)7.0

〈 신산업 주요 투자사례 〉

- **(E사)** 당뇨, 심혈관 치료 약품·의료기기 개발 및 제조(中, 0.2억 달러)
- **(F사)** 스마트폰 고속충전 집적회로 설계·개발(美, 0.3억 달러)
- **(G사)** 데이터센터 증설을 통해 아시아 지역 서비스 확대(美, 2억 달러)
- **(H사)** 배송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새로운 IT기술 개발 (美, 1.5억 달러)

3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장비 분야 투자 유치

○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대외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관련 국내 수요기업의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투자** 유치 성과

〈소부장 주요 투자사례 ①〉

- **(I사)** EUV용 포토레지스트 개발·생산시설 구축 (美, 0.3억 달러)
- **(J사)** 반도체 패키징·디스플레이용 드라이 필름 국내 생산(日, 0.1억 달러)
- **(K사)** 반도체 생산공정에 필요한 석영유리 제품 생산 (日, 0.1억 달러)

○ 이차전지, 자동차 부품, 컴퓨터기기, 기능성 소재 등 **첨단산업 분야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투자는 지속

〈소부장 주요 투자사례 ②〉

- **(L사)**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고성능·고수명 배터리 생산(美, 0.06억 달러)
- **(M사)** 자동차 안전 부품(에어백 액츄레이터) 생산공장 (美, 0.1억 달러)
- **(N사)** 기업용 대형 프린팅 연구개발(네델란드, 2.5억 달러)
- **(O사)** 위생·의료·산업용 친환경 복합소재(스펀본드) 생산 (日, 0.1억 달러)

Ⅲ. 향후 대응방향

「소부장 2.0 전략」과 연계하여 국내·외 첨단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세계적인 첨단산업 협력단지를 조성

◈ 명확한 유치 대상 설정

○ 미래시장을 선도할 **첨단 소부장 분야**와 우리에게 강점이 있고 미래 시장 선점에 필수 분야인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을 선정

* 산업생산 중요성, 기술수준, 특정국 의존도 등을 고려하여 첨단형 158개 품목, 100여개 기업

○ 또한, 비대면 **수요 확대**에 따라 성장 가능성이 큰 **전자상거래, 디지털기기,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투자유치 활동 강화

◈ 세계적인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 다양한 국내·외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범부처적으로 지원하는 **"첨단투자지구"**를 신설하여 세계적인 첨단산업 협력단지 육성

- 이는 새로운 특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 개발된 계획입지**(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를 활용**하여 첨단산업 투자를 유도

- 입주 기업에게는 기존 계획입지에 제공되는 혜택에 더해 **토지이용 특례, 규제자유특구 우선 심사, 공동 기반시설 구축** 등을 추가적 지원

◈ 제도개선 및 지속적인 투자유치 활동

○ 첨단산업 투자에 대해 지원하는 현금지원 제도를 개편하여, **지원한도를 확대하고 국비보조율을 상향**하는 등 특전 강화

* 지원한도 : 첨단·소부장 30%, 연구개발센터 40% → 첨단·소부장 40%, 연구개발센터 50%
국비·지방비 매칭비율 : 수도권 3:7, 비수도권 6:4 → 수도권 4:6, 비수도권 7:3

○ 투자세액공제 개편을 통해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첨단분야 투자**에 대해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

* ① 지원대상 확대, ② 요건 완화, ③ 공제율 우대, ④ 이월공제기간 연장 등

○ 코로나19 대응 역량을 강조한 **안전한 대한민국 홍보 동영상***을 제작하여 해외 투자가 대상 **비대면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 코로나19 대응역량, 유망투자 분야 및 사례, 맞춤형 투자지원 제도 안내 등

Ⅳ. 세부동향(국가별 · 업종별 · 유형별)

1. 국가별 (신고기준, 전년동기 대비)

1 미국 : 신고 17.6억 달러(△43.5%), 도착 5.2억 달러(△20.9%)

○ (업종별) 제조업 감소(6.7억 달러, △46.3%), 서비스업 감소(10.9억 달러, △41.3%)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17.4억 달러, △42.9%), 인수합병형 감소(0.2억 달러, △73.4%)

2 유럽연합(영국포함) : 신고 13.1억 달러(△51.2%), 도착 11.0억 달러(△63.9%)

○ (업종별) 제조업 증가(5.2억 달러, +15.0%), 서비스업 감소(7.6억 달러, △65.1%)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8.6억 달러, △13.5%), 인수합병형 감소(4.5억 달러, △73.4%)

3 일본 : 신고 4.6억 달러(△15.0%), 도착 4.0억 달러(△15.8%)

○ (업종별) 제조업 감소(0.9억 달러, △52.2%), 서비스업 증가(3.6억 달러, +5.4%)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2.8억 달러, △34.8%), 인수합병형 증가(1.8억 달러, +57.7%)

4 중화권 : 신고 27.7억 달러(+66.8%), 도착 16.6억 달러(+53.0%)

○ (업종별) 제조업 증가(8.3억 달러, +40.5%), 서비스업 증가(19.3억 달러, +80.8%)

○ (유형별) 그린필드형 증가(17.2억 달러, +12.8%), 인수합병형 증가(10.5억 달러, +655.0%)

* 중화권 : 중국, 홍콩,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 중국 : 신고 8.6억 달러(+184.4%), 도착 1.3억 달러(+69.0%)

5 기타 : 신고 13.7억 달러(△27.4%), 도착 10.3억 달러(+11.9%)

○ (업종별) 제조업 감소(1.9억 달러, △69.7%), 서비스업 감소(11.8억 달러, △7.4%)

○ (유형별) 그린필드형 감소(9.2억 달러, △17.1%), 인수합병형 감소(4.6억 달러, △41.9%)

2. 업종별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제조업 : 신고 22.9억 달러(△25.7%), 도착 11.1억 달러(△24.6%)

○ (증가업종) 전기·전자(1.9→6.7억 달러), 의약(1.3→4.2억 달러)

○ (감소업종) 기계장비·의료정밀(9.9→1.6억 달러), 운송용기계(6.9→1.3억 달러)

2 서비스업 : 신고 53.2억 달러(△20.9%), 도착 35.7억 달러(△10.2%)

○ (증가업종) 연구개발·과학기술(2.9→7.0억 달러), 금융·보험(15.8→18.8억 달러)

○ (감소업종) 도·소매(유통)(18.7→3.9억 달러), 부동산(14.2→9.1억 달러)

3. 유형별 (신고기준, 전년동기대비)

1 그린필드형 : 신고 55.0억 달러(△22.3%), 도착 23.7억 달러(△32.1%)

○ (업종별) 제조업 감소(24.6→21.9억 달러), 서비스업 감소(45.9→32.9억 달러)

- (증가업종) 전기·전자(1.3→6.7억 달러), 정보통신(7.9→9.8억 달러)
- (감소업종) 도·소매(유통)(12.8→3.7억 달러), 기계장비·의료정밀(9.2→1.6억 달러)

2 인수합병형 : 신고 21.6억 달러(△22.7%), 도착 23.3억 달러(△13.2%)

○ (업종별) 제조업 감소(6.2→1.0억 달러), 서비스업 감소(21.3→20.3억 달러)

- (증가업종) 금융·보험(10.9→16.1억 달러), 연구개발·과학기술(0.4→3.2억 달러)
- (감소업종) 도·소매(유통)(6.0→0.1억 달러), 숙박·음식(3.8→0억 달러).

<끝>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투자유치과 장원 사무관(☎ 044-203-408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